

신년특집

‘부끄러운 불교인’ 달라지자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진 합시다”

산문 안에서 본 재가

스님들이 지적하는 재가불자들의 가장 큰 병은 첫째 실천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불교가 자비의 종교이고 '자리아타' '보살행' 등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고 있고 입만 열면 말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든다. 5계는 불자라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이고 실천덕목이다. 그러나 5계조차 생활에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는 회의적이다.

둘째로 좁은 부분이 사회의식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이라는 말과도 통하면서 비불교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당시 인도사회에서 혁명가였으며 사회개혁가였다. 불교가 인권·통일·복지·사회구제 등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기독교 등에서 세운 복지시설만을 비교해 봐도 능히 알 수 있는 일이다. 타 종교가 사회민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불교는 아웅·관제 소리를 들어왔다. 불교가 사회의식이 약하다는 얘기는 불자들에게 사회의식이 없다는 소리다. 불자들이 사회에 폐는 안 끼치지만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이다. 이것은 불교 근본이념에 대한 자각없이 그저 우리 가족 내 자식의 복과 안녕만을 비는 기복이 그만큼 성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셋째 불교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불교인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생애조차 모르는 불자가 많다. 자신의 신행에 주축이 될 기초교리도 모르면서 다라니를 외운다거나 참선을 제일로 하는 '결정만 든 불자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 교리를 가르치는 교양대학이 늘어나면서 기초교리를 배우는 불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단순히 가르치는대로 습득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공부하는 모습이 아니다. 열불과 기도를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한때일지라도 경전을 읽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넷째로 지적하는 것이 의형적인 불사에만 신심을 내고 복지·인재양성·환경 등 무형의 불사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두번째로 지적한 대 사회의식이 약하다는 내용과 상통한다. 또 불사동맹만이 복지는 일이라 역설하는 일부 스님들의 강권도 작용하겠지만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상(相)내는 의형불사만을 크게 여기는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느 사찰이나 가보면 범종 걸면에는 백백하니 시주자들의 이름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복지단체 후원이나 자원봉사같은 일에는 동참이 인색하다.

다섯째로 지적한 것은 승보공경심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 해당하지만 좋은 스님 나쁜 스님을 구별하고 걸로 나타나는 부정적 이미지로 승단전체를 비하한다. 승가는 부처님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모임이다. 이들을 수행자로 여법하게 완성시키는 일은 당사자의 수행의지뿐 아니라 재가자의 몫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부 신도들은 스님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거나 잘못을 방관하는 경우가 있다. 또 지나치게 때 받든다거나 흑백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재가불자들의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재가자들의 진실한 삼보 공경만이 간혹 승려로서의 위의를 흐트리고 싶던 길을 가는 스님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신 분=태웅 (불교TV 사장) 광우 (전국 비구니회장) 효립 (실천불교승가회 부의장) 선혜 (법륜암사주지) 법인 (화엄학원)

한국불교는 건강한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한국불교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한국불교를 이루고 있는 승가와 재가가 건강하지 못한 까닭이다.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불교인들은 깊숙히 든 골병의 환부를 짚어 한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뼈아픈 자성과 참회로써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스님들이 보는 재가불자들의 고질병은 무엇이고 재가불자들이 보는 승단이 달라져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그룹인터뷰로 의견을 모았다. 가장 많이 지적된 5가지씩 간추려 실는다. (편집자 주)



산문 밖에서 본 스님

재가신도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스님에게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행자다운 스님상이다. 스님이 스님다운때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은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스님들이 유념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계행을 지키는 스님'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실적으로 재가 불자에게 스님들의 파계모습이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다. 대중음식점에서 막대한 스님들을 만날 수 있다. 스님들이 사찰을 지키기보다는 세속인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석예불을 모시는 스님들을 거룩하게 여기며 매달 지켜야 할 포살과 안거가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나타낸다.

둘째는 '정재의 바른쓰임'이다. 정재는 말그대로 깨끗한 부처님 재산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재산=스님들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시품이 그러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사찰 땅이 그러하다. 일부 스님들이 합부로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 재가불자들의 지적이다. 스님들의 의식주가 수행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호화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승복은 누더기가 비단으로 바뀐지 오래다. 여기에 승용차가 지나치게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다. 재가불자들은 그동안 불교계가 보여준 난잡한 싸움도 재산이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화와 그로 인한 손실을 없애기 위해 사찰재산을 사부대중이 공동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로 스님들이 보다 더 겸손하기를 바라고 있다. 스님은 어떤 벼슬의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교만한 스님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적든 스님이라면 대부분 쉽게 사회예절을 무시한다. 타종교인, 공무원, 일반인에게는 그러하지 않으면서 유독 재가신도에게만 거만한 스님들도 있다. 이렇다보니 불교에 관한 것은 본분에 구별없이 모두가 스님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세속의 일도 스님이 관여하고 신도에 관한 것도 스님이 나서며 재가신도와 대화의 부족해 아쉬움을 준다.

넷째로 스님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스님이 되는 절차가 너무 쉽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철저한 행자의 기간을 거친 뒤 스님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수행과정에서 이관과 사관의 구분이 정확하게 지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님의 교육체계가 허술하다보니 시대 감각이 떨어진다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쪽으로 때로는 스님이 수행자로서의 삶보다는 세속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재가불자들이 느끼기에 스님들은 다른 종교 성직자에 비해 보시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자질향상을 위한 스님들의 교육은 곧 불교뿐 아니라 사회를 이끄는 수단이기에 중요하다.

다섯째로 '스님들의 화합'이다. 가장 화합을 강조해야 할 승가가 중단, 문중으로 나뉘어 집단이기주의를 보일 때도 있다. 흔히 부처님 제자는 일불제자라고 한다. 불제자들에게 내가 있고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님에도 승가에 이러한 구분이 보인다. 때로는 사찰마다 신도유치를 위해 스님간의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며 안타까워 한다.

말씀해 주신 분=이기영 (한국불교 연구원 이사장) 민병천 (동국대 교수) 김승석 (변호사) 정해수 (전교조 위원장) 강행원 (한국화가)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 - 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도기에 하소서

<p>대한불교조계종</p> <p>군자봉 영각사</p> <p>주지 현법</p> <p>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산 22-3 ☎ (0345) 498-7700-2 / FAX: (0345) 498-7703</p>	<p>청룡사</p> <p>마야합장단</p> <p>주지 김법운</p> <p>합창단·신도 일동</p> <p>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32-11 ☎ 612-0609</p>	<p>만의사</p> <p>주지 성직 노전응진</p> <p>대중 일동</p> <p>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 (0339) 72-6005</p>	<p>대한불교 조계종</p> <p>관음사</p> <p>주지 종하 신도회장 유무심화</p> <p>신도 일동</p> <p>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49 ☎ 582-8609</p>	<p>서울시립</p> <p>목동 청소년 회관</p> <p>(위탁 운영체:조계종 전국 비구니회)</p> <p>관장 이명우</p> <p>임직원 일동</p> <p>서울시 양천구 목동 918번지 ☎ 646-6815-9, 646-0181-5</p>
<p>금강경 독송회</p> <p>지도법사 김재웅</p> <p>회원 일동</p> <p>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31-80 ☎ 742-0172</p>	<p>인과선원</p> <p>주지 정덕</p> <p>신도 일동</p> <p>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 ☎ 993-3706, 907-3706</p>	<p>대한불교조계종 동리산 대안사 서울 포교당</p> <p>대명사</p> <p>주지 허원명</p> <p>금강선원 회장 이돈우 대명사 신도회장 배불성화</p> <p>금강선원 참선회: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정진</p> <p>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7-10호 ☎ 553-4856-7</p>	<p>경수사</p> <p>주지 김보경 신도회장 이상원</p> <p>신도 일동</p> <p>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목산리 ☎ (0334) 72-3668</p>	<p>대한불교 조계종</p> <p>계룡산 자광사</p> <p>주지 이원행</p> <p>대중 일동</p> <p>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649 ☎ (042) 822-9219 / FAX: 822-9220</p>
<p>남북통일기원청동대불봉안도량 대한불교조계종</p> <p>호국각원사</p> <p>주지 신법인</p> <p>총무 서대원</p> <p>대중 일동</p> <p>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83 ☎ (0417) 61-3545, 62-5332</p>	<p>마이산탐사</p> <p>주지 해명</p> <p>신도 일동</p> <p>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번지 ☎ (0655) 33-2900, 32-0652, 32-0072</p>	<p>약사사</p> <p>주지 장영하 신도회장 황대덕</p> <p>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32-1 ☎ 662-2551, 664-0311</p>	<p>약사포교원 정법대학</p> <p>불교지도자협회회장</p> <p>장각성</p> <p>서울시 강동구 길1동 366-4 ☎ 474-0554 / FAX: 472-5292</p>	<p>삼보사</p> <p>주지 대평 신도회장 신재철</p> <p>총무 전인순</p> <p>인천시 북구 임학동 31-3 ☎ (032) 542-5131</p>